

## 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に関する所見

著者	孟 仁在
雑誌名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巻	14
ページ	62-67
発行年	2000-07-24
URL	<a href="http://doi.org/10.15021/00002222">http://doi.org/10.15021/00002222</a>

## 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に関する所見

孟仁在（韓国文化財委員）

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は、大きくみてプラスチック文化以降を含める現代文化の展示が新しく編入され、既存の展示アイテムは、おおまかな骨格を維持しながら、部分的な調整を加え、「パティオ」には酒幕を新設し、その結果、かなりの変化をみせている。

そのほかに「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植民地時代の文化）展示と「海外のコリアン」も構想されているが、準備中であるため、これから期待される。

現代文化の展示に先立ち、朝倉先生は「五千年の歴史を持つ朝鮮半島の文化」の象徴として檀君を展示対象に選んだ。民俗信仰の表象として檀君を登場させたのは、韓国現代社会の歴史・文化・信仰を現状把握する側面からも適切な方法であったと考える。歴史的には、大きな象徴性を帯びている点で、その選択は妥当であり、それが信仰的な生態からも起伏はあるが厳然として現代社会においても大きな比重を占めており、その信仰自体が現代社会と連続性を持っている点からも意味が大きいと考える。

ただ、適切な展示資料の不足から、展示自体は多少単調になっ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この部分に関しては、今後も資料の補充がされ、現代的な意味付与とともに歴史的な理解ができるだけ補われることが望まれる。

導入部側から朝鮮半島の展示場全体をみれば、空間は内側にとても長く（深く）、壁がとても高くみえる。右側壁面の半分ほどは、大型の透明なガラスになっている。そこからその向こう側の大きな空間を背景にした酒幕と、その前庭の開かれた空間に近づけるようにしたのは、そのそばに再び透明な出入口を設け、酒幕に出入りできるよう開放されたことと同時に、一つの驚異的な成果であるといえる。展示の全体的な印象は、今日の時点からみた現代文化が強調されているという点と、内側に進むほど仏教文化・巫俗文化の宗教的・信仰的な多くの資料が比較的強烈な原色を遺憾なく発している点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

左側に、大きく拡大された儒教的な祭祀映像と仏教文化の資料などがいっぱい飾られ、これに直角をなした突き当たりの壁面には、巫俗文化の資料がいっぱい飾ら

## 新<韓半島 文化>전시에 관한 小見

孟仁在(韓國文化財委員)

新<韓半島 文化 展示>는 크게 보면 플라스틱 문화 이후를 포함하는 現代 文化의 展示가 새로이 편입되고 기존의 展示 아이템은 대개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조정을 가하였으며 “과티오”에는 酒幕을 신설하여 그 결과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그 외에 <韓國에서의 日本 文化>(植民地 時代 文化) 展示와 <海外의 科리안>도 구상은 되고 있으나 그 준비가 진행 중이어서 장래를 기대하게 되는 모양이다.

現代文化의 展示에 앞서 朝倉교수는 <5천년의 역사를 지니는 韓半島 文化>의 상징으로서 檀君을 展示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民族 信仰의 표상으로서 檀君을 등장시킨 것은 韓國 現代 社會의 歷史·文化·信仰 인식에 대한 현상 파악이란 측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歷史적으로는 큰 상징성을 띠는 점에서 그 선택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것이 信仰의 생태에서도 기복은 있으나 엄연히 現代社會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여 그 信仰 자체가 現代社會와 連續性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만 적절한 展示 資料의 부족으로 展示 자체는 다소 단조롭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서는 장래에도 資料를 보충하여 現代의인 意味 부여와 함께 歷史的인 이해가 되도록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導入部쪽에서 韓半島 展示場 전체를 보면 空間은 안쪽으로 매우 길고 (깊고) 벽은 매우 높아 보인다. 右側 벽면의 절반 가량은 대형의 투명한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그 너머 밖에서 더 큰 공간을 배경으로 한 酒幕과 그 앞뜰의 트인 공간이 다가오게 한 것은, 그 곁에 다시 투명한 出入口를 두어 酒幕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한 것과 함께 하나의 驚異的 成果라 할 수 있겠다. 전시의 전체적인 인상은 오늘의 時點에서 본 現代文化가 強調되고 있다는 것과 안쪽으로 갈수록 佛敎文化·巫俗文化의 宗教的·信仰의인 많은 資料들이 비교적 強烈한 原色들을 유감없이 펼쳐보이고 있다는 점인 것 같다.

원편에 대형으로 확대된 儒敎的 祭禮 영상과 佛敎文化 資料들이 가득 메워지고 이에 직각을 이룬 막다른 벽면에는 巫俗文化 資料들이 가득 메워

れている。これらの高い壁面の大型展示に囲まれた、真ん中の列の展示には、人の一生、生と死をつめた韓国人の通過儀礼的な資料が有機的な関係で配置されており、これら多面的な精神的基調が、一つの空間に統合され、流れているような印象を与える。

そして、向かい側壁面に引き続く、農楽・仮面劇の資料と平生図屏風も、それぞれ芸術的・精神的な流れの系統を象徴しているのである。

韓国人の一生を通じた儀礼に割り当てられた展示空間と資料は、おそらく不足した空間のため最大限に縮約され、節約されたことをみせている。とくに「トル」（一歳の祝い）から「婚礼」にいたる限られた資料は、とても象徴的なものに限られ、節制されているので、その夢や願い、希望的な雰囲気の出出とといったものを考えると多少もったいない感じを禁じ得ない。葬礼での喪主夫婦の服装からも、簡略さと強く象徴的な表現技法の限界がうかがわれ、むしろ観客の心に強い印象を植えつける技法となっているようにも思われる。

農楽と仮面の展示からは基本的な資料の陳列にとどまっている感じを受けるが、この点は空間が不足しているためと見当している。その芸術的な行為の映像が、せめて小さな写真でも補えないものかと思う。国楽や民俗音楽のような分野は、すべて省略されているものの、展示の効果面では、硬直した資料の羅列にとどまらず、固い気持ちと呼び起こす聴力に呼びかける方法はないのか？（もちろんビデオテークがあるにはあるが）

食生活の用具と食文化の展示も、極めて象徴的なもの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を見て取れるが、やはり空間不足のためと推測される。

生活用具の展示は、この展示場の入り口右側に位置を占めている。この部分で「ひき臼」や「背負子」、「石臼」および裏側の「犁」「唐鋤」「穀竿」などは部分的に調整をし（酒幕の物置小屋に移すなど）、より高さがあがった展示壁面を平面、または2-3段のピラミッド型の展示台によって低くしたなら、その内側の食生活側の展示空間と入り口側から内側を一目で展望できる。現在の状態では、水平な視点で平生図の展示壁面側を遮断する役割をし、展示導入部である左右の導入空間を二分しているように感じられる。導入空間を拡大する関係が調整されたなら、朝鮮半島の展示場の導入部空間は、大きなガラス窓の外映る酒幕と、その全面の広場全体の空間が、酒幕出入口および済州島民家の模型側空間ともすべて単一空間として統合する効果を得ることができ、朝鮮半島の展示場をとりまく全体空間の雰囲気も大きく広がるのでは

져 있다. 이들 높은 벽면의 대형 전시에 둘러싸인 中列의 바닥 전시에는 人生의 一生, 生과 死를 담고 있는 韓國人의 通過儀禮적 資料들이 有機的 關係로 安排되어 있어 이 들 여러 면의 精神的 基調가 하나의 空間에 統合 되어 흐르고 있는 듯한 印象을 준다.

그리고 건너편 벽면으로 이어지는 農樂·假面劇 資料들과 平生圖 屏風 들도 각기 예술적·정신적 흐름의 한줄기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한국인의 一生儀禮에 배정된 展示空間과 資料들은 아마도 부족한 공간 때문에 최대한 축약되고 절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특히 “돌”에서 “혼례”로 이어지는 약간의 자료들은 매우 상징적인 한도에서 절제되고 있는데 그 꿈과 소망, 희망적인 분위기의 표출에서 다소 아쉬운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상례에서의 상주 內外의 服裝에서도 간략함과 강한 상징적 표현 기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오히려 관객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법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농악과 假面 전시에서도 기본적인 자료의 진열에 그친 느낌이 드는데, 이 점은 공간부족 때문이었다고 짐작되었다. 그 예술적 행위의 영상들이 작은 사진으로라도 보완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國樂과 民俗樂 같은 분야는 모두 省略되었으나 전시의 효과면에서는 경직된 자료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굳은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청력호소의 방법은 없을는지? (물론 비디오테이크가 있기는 하지만...)

食生活 용구와 食文化 樣態의 전시에서도 극히 상징적인 것으로서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역시 공간의 不足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생산용구 전시는 이 전시자의 入口 右側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部分에서 “메통”과 “지계”, “맷돌” 및 뒤편의 “쟁기”, “따메”, “도릿개” 등은 부분적인 調整을 하고(酒幕의 헛간에 이전?) 더 높이 올라간 展示壁을 平面 또는 2-3단의 피라밋형 전시대로 낮추어 준다면, 그 안쪽의 食生活 쪽 展示空間과 入口 쪽에서 안쪽을 한눈에 전망할 때에도 수평적 시각에서 平生圖 전시벽 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展示 導入部 左右 初入 空間을 양분하는 상태로 느껴져 導入 공간 확대 관계가 조정된다면 한반도 전시장 도입부 공간은 대형 유리창 밖에서 비쳐 들어오는 酒幕과 그 전면 마당 전체의 공간이 酒幕 出入口 및 濟州島民家模型쪽 공간과도 모두 단일 공간으로 통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반도 전시장 전체 공간 부위기도 크게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짐작된다.

ないかと指摘できる。

酒幕の前庭に降りる階段の間のステンレス板は中庭の土と合うように色を塗れば、もう少し調和が出てくる。また「チャンドクテ」（味噌醤油をためた瓶）は多少狭く感じられ、もう少し広くすれば安定感を与え、小さな素焼き壺をいくつか追加すれば、まとまった雰囲気を出せるのではないか。この先、ある時期にチャンドクテの段を少し低くして広げて、大きな瓶のまわりを観覧者が自由に歩き回ることができ、瓶と壺のなかには醤油、味噌、コチュジャン（唐辛子味噌）、チャンアチ（大根などの醤油漬け）、塩辛などを、食物模型の状態ですれば、酒幕はより活性化し、展示も多様になると思われる。酒幕の周囲は、現在とてもぎこちなく、実際とは異なった雰囲気である。息苦しさを減らすことが酒幕が持つ本来の機能であると考えれば、空間状況はとても逆説的である。しかし一方で、運良くもこの世界的な大博物館の貴重な展示空間に招待され、多くの来訪客と出会うことになる。酒幕の機能は、酒を売って人々に安らぎを与えたりもするが、通り行く人を泊ませたり、食事を提供したり、各地の消息を伝えて交換する交流の場所でもある。過去において、もっとも普遍的な休憩空間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古い文献に酒幕という名称は頻繁にみられない。成宗のとき、郷里泰仁に隠居した丁克仁（1401－1481）の嘗春曲には「樽中が小童 酒家に酒を納め…」という節が春の日を楽しむ歌詞のなかに入っているのがみえる。

酒幕の周辺にある空き地に粗略な木箱などを配列して、そのなかに土を入れて野菜や草を植え、花木や落葉樹を植え、多少美化、緑化すればいいし、入り口の内側には古い木の根もとと古びたチャンスン、ソツても一組ずつ立てたなら、多少は趣のある雰囲気を醸し出すことができる。

われわれの希望事項は多く限らないながら、ここまでその可能性の世界を引き出し、希望事項を開陳できるように、新しい展示局面を開いてくれた国立民族学博物館当局と研究陣の苦勞に感謝したい。

酒幕의 앞뜰 계단 사이의 스테인레스판은 마당의 土色과 맛도록 塗色을 한다면 좀 더 조화가 될 것 같으며 장독대(받침)는 다소 협소한 듯 하며 좀 더 넓혀서 안정감을 주고 작은 단지 몇 개를 추가한다면 아담한 모양을 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장차 어느 시기에 장독대의 단을 좀 낮추고 넓혀서 큰 독 주위를 관람자가 자유롭게 걸어서 돌 수 있게 하고 독과 단지 안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젓갈 등을 음식 모형 상태로 내부 처리를 하면 酒幕은 더욱 활성화되고 전시도 다양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酒幕의 四周는 지금 매우 딱딱하고 이질적인 분위기이다. 답답함을 덜어주는 것이 酒幕의 본래 기능인 것을 감안하면 空間 狀況은 매우 역설적인 것 같다. 그러나 또 한편, 운이 좋게도 이 세계적인 대박물관의 귀중한 전시 공간에 초대되어 많은 내방객을 맞게 되었다. 酒幕의 기능은 술을 팔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行人을 재워주거나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며 사방의 소식을 전하고 교환하는 교류의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과거에 가장 보편적인 휴식 공간이었음에도 옛 文獻에는 酒幕이라는 이름자가 흔히 보이지 않는다. 성종 때, 鄉里 泰仁에 隱居했던 丁克仁(1401-1481)의 嘗春曲에는 “樽中이 뷔였거던 날다려 알외여라, 小童 아회다려 酒家에 술을 물어....” 라는 句節이 봄날을 즐기는 가사 중에 들어있음을 보이고 있다.

酒幕의 주변 空地에 粗略한 나무 상자라도 배열해서 그 안에 흙을 채워 채소나 풀도 심고 꽃나무와 낙엽수도 심어 다소 美化, 綠化 했으면 좋겠고, 入口 안쪽에는 오래된 나무 등치와 넓은 장승, 솟대도 한 쌍 씩 심는다면 다소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것 같다.

우리들의 희망 사항은 많고 한이 없으나 여기까지 그 可能性의 세계를 이끌어 오고 希望 事項을 개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展示 局面을 열어주신 民族學 博物館 當局과 研究陣의 勞苦에 감사한다. (끝)